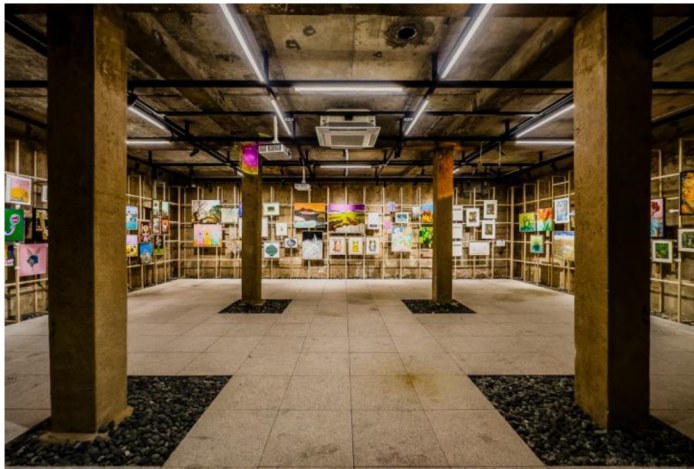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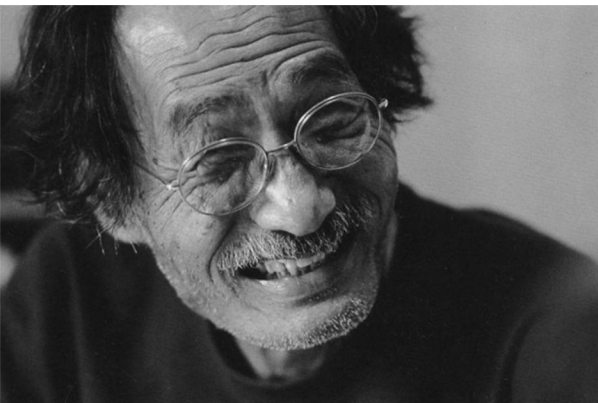




세종지역행센터 소식지

세종 '네'컷

제4호 (2025년 6월)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컷〉 목차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시간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백제대제
- 함께 축하해요, 세종대왕 나신 날!
- 2025 세종 작가미술장터, One Pick Market
- 잊지 못할 이름, 세종시 보도연맹 희생자들
- 장욱진의 숨결, 세종에서 다시 깨어나다!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로컬 기업과 손잡은 세종지역학센터
- 세종지역학센터의 특별한 가을 맞이
- 세종지역학센터의 반가운 새 얼굴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예술과 장터가 숨쉬는 미래마을 노리미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지역학자들의 공론장, 23th 한국지역학포럼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시간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백제대제
- 함께 축하해요, 세종대왕 나신 날!
- 2025 세종 작가미술장터, One Pick Market
- 잊지 못할 이름, 세종시 보도연맹 희생자들
- 장욱진의 숨결, 세종에서 다시 깨어나다!

세종지역학센터

시간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백제대제

제43회

百濟大祭

2025. 4. 15. (화)

오전 11시

아침뜰근린공원 원형광장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96)

※ 본 리플릿은 초청장 대신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한솔동 아침뜰근린공원 원형광장에서는 제43회 백제대제가 개최되었다. 백제대제는 백제 부흥운동(660-663)이 실패한 이후 백제의 역대 국왕과 대신, 칠세부모를 위해 전씨를 중심으로 모인 백제 유민들이 불비상을 만들며 제사를 지낸 데서 시작되었다. 이 제의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1983년 전의고적보존회에 의해 재현되었다. 2025년 신도시인 세종시 한솔동에서 펼쳐진 제43회 백제대제는 1500년 전 백제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떠나간 이들을 그리는 마음으로 시간의 벽을 넘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덧붙이는 말) 불비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백제대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비상(佛碑像)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중에서 세종시 전의면에는 비암사라는 아주 작지만 소소한 아름다움을 내뿜는 깊은 산골짜기의 사찰이 있는데, 1960년 석탑 위에서 어떤 학생에 의해 ‘불비상’이 발견되었다. 계유년 전씨에 의해 새겨졌다고 하여,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은 이 지역에서 과거 후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향토사학자 故김재봉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주류성’을 운주산성 일대로 비준하기도 했는데, 이는 불비상과 관련이 깊다. 과거 비암사를 비롯해 서광암·연화사 등에서만 발견된다고 하여 ‘연기불비상’이라고도 불리며,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전용 전시실에서 전시될 만큼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이 문화유산에 관해 우리는 세종시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함께 축하해요,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15일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생일로 1965년 '스승의 날'로 지정된 데 이어 작년 11월 문체부에서 지정한 국가기념일 '세종대왕 나신 날'이 되었다. 올해는 이날을 기념하여 세종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기념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종시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 체험 등을 진행하였다. 모처럼 한글사랑거리에 모여든 많은 시민들은 세종대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을 함께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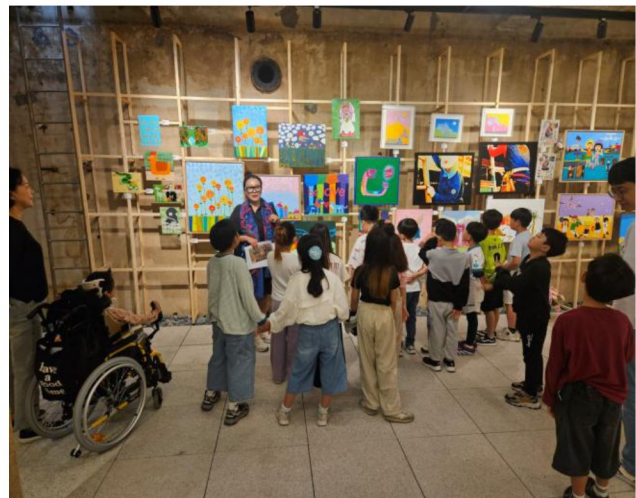
세종대왕 나신 날을 함께하는 시민들



2025 세종 작가미술장터, One Pick Market

장애 여부를 뛰어넘어 의기투합한 작가들이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출품한 <2025 세종 작가 미술장터, One Pick Market>행사가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조치원문화정원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작가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을 보고 즐길 뿐만 아니라 구매하기도 했다. <One Pick Market> 행사는 단순한 미술 전시회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작가들이 직접 소통함으로써 세종지역 시민사회에 예술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름다운 소통과 교류의 이 자리에 세종지역학센터가 함께 했다.

(주관) 스페셜 아트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미술장터 (협력) 조치원문화정원



못 다 핀 꽃이 된, 세종시 보도연맹 희생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세종시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국을 휩쓴 보도연맹 가입자 체포의 피바람은 舊 연기 지역도 피해가지 않았다.

1950년 7월 초, 연기 지역의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산울리 일원(舊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은고개)으로 끌려가 무참히 학살당했다.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유해발굴 결과 시신과 함께 고무신 30여 켤레가 발굴되었다.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세종시지회에서는 세종시의 후원으로 2013년부터 이들의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올해 6월 18일, 세종시보도연맹 희생자 추모공원 예정지에서 진행된 제11회 위령제의 현장을 세종지역학센터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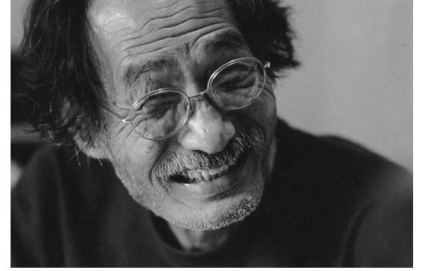
제11회 세종시보도연맹희생자 위령제

2025. 6. 18. (수) 오전 10시
세종시보도연맹희생자 추모공원 예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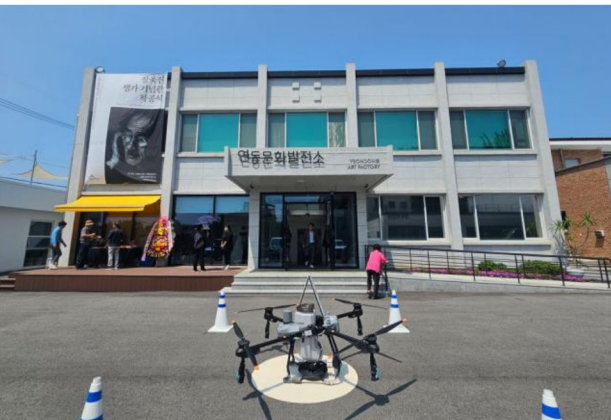
주최/주관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세종지회 / 희생자유족회 후원 세종특별자치시



장욱진의 숨결, 세종에서 다시 깨어나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화가 장욱진(1918-1990)의 숨결이 그의 고향 세종시에서 다시 깨어난다. 지난 6월 18일(수) 열린, 장욱진 생가 기념관 조성을 위한 착공식은 세종시가 낳은 화가 장욱진의 삶과 예술 세계가 다시 한 번 대중들 곁으로 다가오는 기회의 시작을 알렸다. 장욱진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서 태어나 8세 때 서울로 유학을 갔으나, 6.25 전쟁 피난을 위해 고향에 잠시 머물면서 <자화상>, <나룻배>, <연동풍경> 등의 대표작을 그렸다. ‘나는 심플하다’라는 인생의 모토 아래 자연·가족·마을 등 친숙한 소재들을 그렸던 장욱진. 2027년 완공 예정인 장욱진 생가 기념관에서 그의 예술 세계가 고향 세종시를 다시 수놓을 순간을 기대한다.



장욱진생가기념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2017년도~현재



가여 위의 약속
가여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온 것만...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로컬 기업과 손잡은 세종지역학센터
- 세종지역학센터의 특별한 가을 맞이
- 세종지역학센터의 반가운 새 얼굴

세종지역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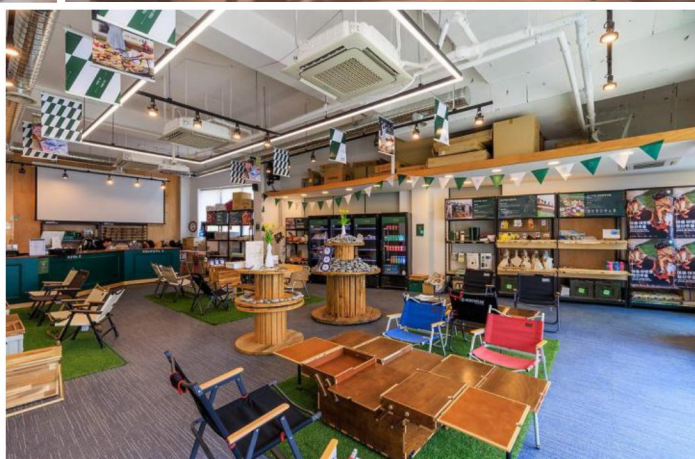
로컬 기업과 손잡은 세종지역학센터

지난 7월 2일 오후 4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센터장 : 이재민)는 세종시 관내 로컬 기업 조치원문화정원 및 (주)PAL문화유산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은 세종시 지역학 관련 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관과 기업의 연대를 공식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치원문화정원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세종지역학센터와 함께 세종학 봄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 조치원정수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문화정원의 역사와 미래를 세종 시민들에게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달인 8월 21일에는 세종지역학센터가 (주)PAL문화유산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세종학 가을 세미나가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세종지역 예술과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을 가진 지역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는 소식이다.



세종지역학센터의 특별한 가을 맞이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는 (주)PAL문화유산센터와 함께 다음달인 8월 21일, 카페 침산추월(세종시 조치원읍 침산2길 8-6)에서 세종지역학 가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되었던 봄 세미나에 이어 화제가 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고고학의 시선으로 즐기는 세종’으로 알려졌다. (주)PAL문화유산센터는 조치원에 기반을 둔 세종시 로컬 기업으로, 직접 유물을 제작 및 활용하는 실험고고학의 대중화와 조치원의 적산가옥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 기업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카페 침산추월을 매입하여 사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치원 구 도심에 또 한 번 활력을 불어넣었다. 고고학의 창조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다가갈 세종시 역사적 유산들의 모습이 기대되는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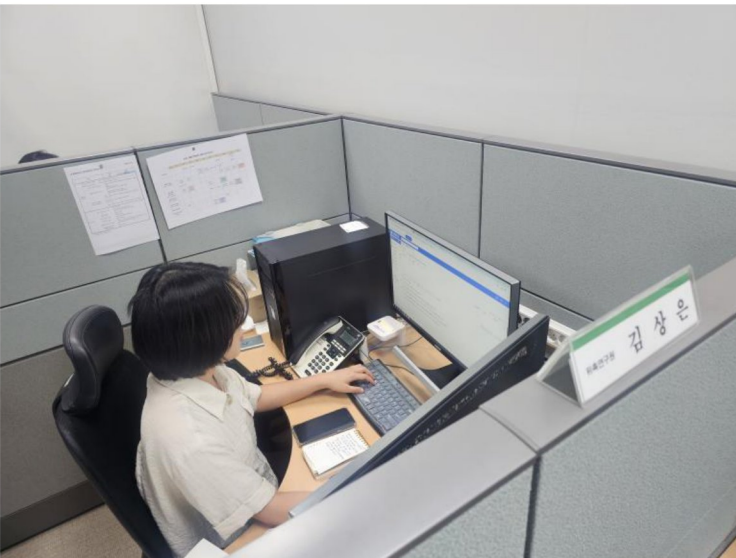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및 (주)PAL문화유산센터 홈페이지

세종지역학센터의 반가운 새 얼굴

창 밖으로 제비들이 날아다니던 지난 7월 1일, 세종지역학센터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새로 채용된 위촉연구원 김상은 씨다. 1998년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난 김상은 씨는 충북대학교 사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공주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사를 좋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꼬대로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을 부르기까지 했다는 김상은 씨. 그 인연 때문인지 묘하게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계승을 표방하는 세종시에 동지를 틀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포부 역시 세종대왕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람들을 돕고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세종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연구, 활용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현대에 이어가려는 김상은 씨의 꿈이 세종지역학센터에서 날개를 펼칠 순간들을 기대해 본다.



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김상은 씨(좌) / 세종대왕릉을 답사하는 그의 모습(우)



세종지역학센터 내 일하는 모습(좌) / 공주 유적지 답사(우)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세종 FM 98.9mhz)

정책살롱 제16회 _ 한글문화도시로서 세종시의 비전 / 김형주 기획팀장(한글문화도시센터)

정책살롱 제17회 _ 스마트시티 세종시의 스마트모빌리티 / 안용준 박사(대전세종연구원)



※ 정책살롱에 나와 주실 연구자, 활동가 분을 모집합니다. 섭외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이재민의 문화로 만난 세종 (세종의소리)

천재화가 장욱진, 세종에서 재탄생한다

화가 장욱진, 마치 그의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순수함이 묻어나 있다. 예술적 경지의 아름다움은 '심플함'에서 오는 순수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의 질곡을 느낄 수 있는 고독함을 함의...

칼럼 | 이재민 | 07-02 09:55

"세종학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세종학'이 무엇일까? 세종학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학을 말한다. 그렇다면 지역학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지역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

칼럼 | 이재민 | 06-12 10:26

세종대왕 탄신일, '세종시민의 날'로 지정하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우리 삶에서 스승은 어떤 존재일까? 해마다 5월 15일이 되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 선생님을 생각하게 된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미안한 마...

칼럼 | 이재민 | 06-02 08:13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예술과 장터의 협주곡, 미래마을 노리미

예술과 장터의 협주곡, 미래마을 노리미

세종시 연동면 노송 1리에서는 농촌 빈집 정비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 대상이 된 마을은 마을 뒷산이 노루를 닮았다는 세종시 연동면 노송1리 노리미 마을이다. 미래마을사업은 크게 빈집 철거, 기반시설 정비, 마을특화 사업 발굴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노리미 마을에서는 먼저 빈집 8호 중 5호를 철거하고 공공활용 동의 부지를 이용하여 정원 2개와 카라반을 조성했다(1단계). 다음으로 CCTV와 아미산 산책로 등을 정비했으며(2단계)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농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3단계).

올해로 432살(1593년생)이 된 느티나무 아래 수많은 바람개비들이 물결치는 노리미 마을. 세종 지역의 역사를 품고 미래를 기르는 진정한 ‘미래마을’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지역학 논의의 장, 한국지역학포럼

세종지역학센터

지역학자들의 공론장, 23th 한국지역학포럼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동그랜드호텔에서는 제23회 한국지역학 포럼이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로컬리즘(Localism)과 지역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역의 활동 양상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세종지역학센터(이재민 센터장)에서는 ‘조치원 1927’과 ‘조치원문화정원’을 사례로 <‘소외’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 되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통해 세종시의 문화공간과 도시재생 등의 아젠다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세종학 소식지

〈세종, ‘네’컷〉 제4호 (2025년)

〈세종지역학센터〉

- 이재민 센터장
- 이자은 연구위원
- 김상은 위촉연구원

〈발행인〉 이재민 센터장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세종지역학센터